

이념이 떠나고 남은 자리*

김 민 혁**

지금 내 앞에는 세 권의 칼럼집이 있다. 한 권은 언론인 문창극의 『문창극 칼럼(2008)』이고, 다른 한 권은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의 『쿠오바디스 한국 경제(2009)』, 또 한 권은 서울대 사회학과 송호근 교수의 『독 안에서 별을 헤다(2009)』이다. 여기에서는 <문창극 칼럼>에 대한 평(評)을 하려고 하는데, 이에 앞서서 세 권의 칼럼집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 볼까 한다. 그것은 세 권의 책 모두가 “‘이념’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문창극 칼럼』 1장 제목은 “허상의 싸움은 그만두자: 이념을 넘어서”이다. 이준구 교수 칼럼집의 부제는 “이념이 아닌 합리성의 경제를 향하여”이고, 송호근 교수 칼럼집의 첫 째 글의 제목은 “진리는 멀고 이념은 가깝다.”이다. 그러면 이들이 비판하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송호근 교수에게 있어서 ‘이념’은 인식적 오류를 야기하는 존재이다. “아무리 객관적,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려고 노력해도” 무의식적으로 개입하는 이념적 편향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사회과학자로서 그리

* 문창극, 『문창극 칼럼』(을유문화사, 2008)에 대한 서평

** 서울대 정치학과 석사과정

고 정치평론가로서의 임무는 이념이라는 주관적 세계관의 유혹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준구 교수에게 있어서 ‘이념’은 특정한 정치적 세력의 신념체계이다. 이념에 기초한 판단은 특정한 정치세력의 입장을 반영하기 때문에 합리적일 수 없다.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는 이념적인 입장을 떠나 객관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져야 한다.

문창극의 ‘이념’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념은 ‘허상’이며, 이념에 갇히면 정작 중요한 삶의 문제들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념은 문제를 선/악 구도로 만듦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확산시킨다. 이러한 지적은 한국의 현실에서 상당히 옳다. 한국정치의 장에서 대부분의 논쟁들은 이념논쟁 혹은 선악구도로 재편된다. 최근의 방송법 개정안 논란은 이내 “방송악법” 혹은 “MB악법”으로 기호화된다. 그 순간부터는 묘사한 쪽도, 묘사된 쪽도 타협의 여지는 없어진다. 공론의 장은 협소해지며, 정치과정은 싸움의 난장판이 된다. 최장집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비결정(non-decision)의 결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삶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회경제적 이슈들이 민주적 공론장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반면에, 정치쟁점이나 이념논란은 과잉된 구조라는 것이다. 이러한 공론장의 구조는 민주주의의 질적인 취약성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허상의 이념싸움’을 넘어서는 대안은 무엇일까? 정치평론은 대개 정치적 사건 또는 현상에 대한 비판적 해석과 더불어 평론가 자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문창극에게 있어서 정치적 현상을 비판하는 주요한 틀은 ‘이념적 관점에 갇힌 왜곡된 사고’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대안들을 간단히 유형화하여 정리해보겠다.

(1) 법과 원칙에 대한 강조이다. 법과 원칙은 ‘정치’라는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법 원칙만으로 사회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규칙’이라는 것이 그렇듯이 법과 원칙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하지만 우

리 사회에서는 이 최소한의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많았다. 따라서 법과 원칙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해결의 처음과 끝에는 항상 법과 원칙이 놓여있어야 한다.

(2) 전문가적 지식을 갖춘 실용주의이다. 거대담론이나 이념논쟁은 삶의 구체적 문제들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사회의 실질적 개혁을 위해서는 세부적 정책들을 잘 연구하고 실행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제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접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보다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3) 국익 중심 경쟁력 강화이다. 이와 관련해 문창극은 “일등국가, 일등승객”론을 주장한다. 국가가 일등 국가가 되면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일등 국민이 된다. 국가의 급이 낮으면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삶의 질을 누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에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이 하나로 뭉쳐서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국민도 잘 살 수 있다.

문창극의 한국사회 분석과 전망은 이러한 일관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러한 관점이 전혀 새롭다거나 신선한 느낌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저자가 지난 10여 년 간의 기간을 걸쳐서 꾸준히 일관된 관점으로 한국사회를 분석하고 평가해왔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책을 읽다보면 저자의 치열한 고민과 오랜 경륜에서 나오는 노련함이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정치평론들을 읽으면서 갖게 된 의문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점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글을 맺도록 하겠다.

먼저, 저자 자신이 이념적 시각을 제대로 뛰어넘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다. 사실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프란츠 셔먼의 정의에 따르면, 이념은 세계관과 일관된 행동지침을 동반하는 체계적 사고들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이념 또는 신념체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신념체계로부터 나온 개인들의 ‘의견’이 정치의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다. 다만 정치평론가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내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의견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데 있다. 왜냐하면 정치평론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임무는 독자 혹은 대중들에게 ‘좋은 의견’을 제공해주는데 있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좋은 의견을 만들어나가도록’ 도와주는데 있기 때문이다. 문창극의 칼럼들에서는 가치문제에 대한 단정적인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러한 평론전략은 자신의 이념 혹은 자신의 의견에 대한 과도한 강조로 읽혀질 가능성이 크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평등의 결과는 당연히 하향 평준이 될 수밖에 없다.”, “당원은 시장을 없애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지만 부자는 경제를 살린다.” 등의 표현이 그러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가치문제에 대한 서술은 구체적 논증을 필요로 한다.

둘째로, 문창극의 칼럼은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가 즐겨 쓰는 수사적 전략인 비유법이 그러한 경향을 잘 보여준다. 가령, 사회계층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농사에서 아랫논에 물대는 것에 비유한다거나, 국가의 경제적 성장과정을 청소년 시기의 신체적 성장과정에 비유한다. 이러한 비유전략은 현상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겠지만, 반대로 보다 심층적인 논의의 전개를 가로막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정치평론에서 비유법 등의 수사적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구체적인 문제상황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전략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문창극의 칼럼 가운데서도 이러한 전략을 잘 활용한 글들이 있다. <세금과 민주주의>에서는 종합 부동산세 제도에 의해서 과도한 과세부담을 지게 되는 K씨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제도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 문제를 잘 드러내었다. 그리고 <민생이 목마른 이유>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오히려 부담이 가중되는 세입자 장 아무개 씨의 상황을 통해서 당초의 목표와는 상반되는 제도의 부작용이 발생함을 잘 지적하였다. 이런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공론의 영역으로 부각시키는 것이야말로 문제해결의 첫

결음이다. 다만, 주의해야 점은 특정 문제 상황을 전체 제도나 정책 전반의 문제로 (성급하게)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종합 부동산세 제도가 1주택 보유자인 K씨에게 과도한 세금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종합 부동산세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은 너무 성급하다.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준구 교수는 종합 부동산세 제도의 조세형평성이라는 긍정적 기능을 보존하면서도 선의의 피해자 K씨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음을 보여준다(이준구, “슬픈 종부세”).

셋째는, 칼럼 모음집이라는 책의 구성과 관련된 제언이다. 문창극 칼럼의 구성은 그가 신문사에 기고했던 칼럼들을 주제나 이슈영역별로 선별하고 분류하여 묶어놓는 형태로 짜여있다. 그러나 칼럼들의 특성상 글과 글 사이가 분절적인 속성이 있으며, 시의성도 떨어진다. 따라서 각 장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에 대한 내용적인 정리와 회고적 평가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방법은 최근에 출판되고 있는 다른 칼럼 모음집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참고할 수 있겠다.

사실, 우리사회와 같이 살벌한 이념논쟁의 공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칼럼을 써오고 있는 저자에 대하여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순간 이념적 좌표에 의해 위치 지워지고, 공격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문에서 제기했던 문제점들은 앞으로 더 좋은 정치평론을 써주기를 바라는 기대로 받아들여 주었으면 좋겠다.